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대구경북지부 임승현 지부장

가을비에 젖어 단풍 물이 스며 나올 것 같은 고속도로변 풍경을 감상하며 대구로 향했다. 임승현 지부장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는 대구 월드컵경기장. 수성 IC에 진입하자 눈에 들어오는 경기장의 모습이 인상 깊다.

“고향은 서울입니다. 일 때문에 경주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경주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는 한 3년 일하다 서울로 올라가야지 했는데, 독립해 개인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지금은 완전 대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창 플레이오프 두산 대 삼성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여서 응원팀을 물어봤다.

“20년 넘게 살았으니 자연스럽게 삼성을 응원하게 되더군요. 평소에는 잘 못 보고 플레이오프 때는 빼먹지 않고 봅니다. 오늘 경기도 기대되네요.”

별은 어렸을 적부터 좋아했다고 한다. 사는 곳이 서울이었지만, 어릴 적 서울 하늘에서는 그래도 제법 많은 별을 볼 수 있었다.

“동네에 TV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던 시절이었죠.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늦

게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머리 위에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었어요. ‘저 별은 내 별이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형이 먼저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형에게 내 별을 뺏긴 후 ‘저 별보다 더 밝은 별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별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별자리를 알게 되었고, 학창시절에는 별자리를 잘 아는 친구로 통했다고 한다.

“많이는 몰랐습니다. 그냥 북두칠성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 몇 개만 알아도 아는 척 할 수 있었죠. 그러다 한참을 잊고 살았습니다.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늦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서른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문득 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작은 망원경을 사서 혼자 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별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느낄 때쯤 대구지역 아마추어천문 동호회인 천성대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다.

“동호회 활동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 신부님이 망원경을 갖고 계실 만큼 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신부님 모시고 둘이서 정말 많은 산



을 다녔습니다. 성당에서 관측회도 여러 번 열렸고요. 그렇게 4, 5년은 별 보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신부님이 다른 곳으로 가서서 그때만큼 열심히 다니지는 않습니다.”

임승현 지부장이 활동 중인 천문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아마추어천문 동호회이다.

“타 지역 단체와의 교류가 별로 없어서인지 보수적이라는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비추어질 뿐 그냥 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관측회도 하고, 매년 천문캠프도 엽니다. 그런데 캠프는 항상 적자예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다보니 회비를 비싸게 못 받으니까요. 힘도 들고, 돈도 들고 해서 한 해 쉬려고 했지만, 걸려오는 문의 전화와 이쪽 지역에서는 유일한 천문캠프인데 하는 생각에 안 할 수가 없더군요. 벌써 15년째입니다. 회원들의 열정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 눈에 띄는 동호회가 없다.

“대학동아리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행사를 하면 다른 지부는 여러 동아리에서 활발히 움직이는데, 이쪽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잘 보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학교 동아리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인터뷰 중 휴대폰 벨이 울린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색소폰 얘기가 오간다.

“지인 중에 색소폰을 잘 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배울 사람 모아서 강습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전화는 제가 부탁한 악기 갖다 놨다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악기라고는 예전에 기타 조금 배웠고, 하모니카 부는 걸 좋아합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요. 관측하러 나가서 보면, 못 붙어도 분위기에 그냥 좋게 들어줍니다.”

대구경북지부장을 맡은 지는 올해로 3년째다. 학회는 2000년도쯤 천문지도자 연수에 참가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학회 분들과 알고 지내다가 대구지부가 없으니 한번 말

아보라는 부탁을 받았습시다.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별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니까 말았습시다. 다른 지부는 교사 분들인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행사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만, 사업을 하는 제가 맡고 나서는 일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기반이 잡히면 저보다 유능한 분께서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많고, 주말에 하다 보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한다.

“동호회 정기 관측도 있고, 전국학생체관측대회도 있고, 그믐 전후로는 공개관측을 나갑니다. 날이 추워지면 별 보기 더 좋아지니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 것 같네요. 그나마 별 보는 취미라서 아내가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는 칠원에 사는 큰누님 댁에 갔었습니다. 망원경을 갖고 올라갔죠. 가족을 위한 공개 관측회는 처음이었어요. 형님이나 누님이 처음 망원경을 보고 신기해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줬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는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막연하게 작은 돔을 짓고 별을 보는 전원생활을 꿈꾸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한다.

“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꾸는 꿈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대구 쪽에도 시민천문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이쪽에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몇 주 전에 달서구에서 별축제가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을 보니 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더군요. 그런 행사가 자주 있고, 접할 기회가 많아야 과학 마인드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맞는 몇 분과 대구시에 천문대 건립을 건의해보자 하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명운동도 생각하고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는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그 시일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노력해 봐야겠죠.”

2009년 세계 천문의 해를 맞아, 내년에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임승현 지부장.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부디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길 바라본다.